

# 선거공영제 등 두고 반응 제각각

###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종법개정 특위 공청회 제도 시비 속 비구니 참종권 확대 주장 눈길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종법개정 특위 공청회 제 · 개정 특별소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특위가 (가칭)통합선거법(안)을 대중에 선보였지만 사부대중 간 이견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특위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은 주재발제 '각급 선거제도의 현황 개선방안'을 통해 선거법 제정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법안 스님은 "급권선거 등 병폐가 심각한 현행 종단 선거 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통합선거법(안)은 종단 내 주요 선거인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교구총회의원, 본사주지 관련 선거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스님은 321명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총무원장 선거는 교구 본사 주지, 문종 등에 의해 간섭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스님은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강화 > 선거공영제 도입 > 별칭강화 > 교구총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총무원장 임기를 5년 또는 6년의 단임제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선거법 제정안의 핵심을 '선거 공영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공영제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이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발제 후 토론자들은 종단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하자는 의견과 좀 더 개방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금산사 주지 원형 스님은 "선거법 제정안 대다수의 내용이 종단의 근간인 중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도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며 단임제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교구총회 · 선거별칭 강화 총무원장 직선제 등 제안

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종단은 선거법제정안이 지나치게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있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비껴간 흔적이 보여 아쉽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급히 처리하지 말고, 꼼꼼히 점검하고 연구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

위원 동출 스님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직선제와 종단 대중공의 전면 제정검을 촉구했다. 중앙총회의원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강조했다.

동출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비구, 비구니 구축을 받은 사람들이 직선제를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321명 돈으로 얼마면 되겠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총무원장이 되면 또 당선되고 싶은 것이다"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부처님 당시 승가의 조직운영원리는 공화주의, 평등주의,

비폭력주의였다. 지금 종단에서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점검해야 한다. 대중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승가 구성원의 절반이나 되는 비구니들은 총무원장을 포함한 교육원장, 포교원장 및 회계원장, 하다못해 회계위원 선거에서마저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비구니도 비구와 똑같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전개

### 출가 · 열반절 맞아 참회발원 정진주간 선포

조계종이 출가열반절(2월 29일 ~3월 7일)을 맞아 참회발원 정진주간을 선포하고 조계종이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출가절(음력 2월8일)과 열반절(음력 2월15일)을 맞아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수행 · 전법을 외호하는 21세기 승보(僧寶) 공양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승보공양운동'은 아름다운 승가공동체 정신회복과 재가자의 보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관련 사업들은 승려노후복지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승보공양운동은 출가열반절 · 백중 승보공양 행사와 승보공양 후원의 밤 개최를 비롯해 상시 프로그램으로 > 승보공양 기금모금 통합

> 스님 간병하기 등이 준비됐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조계종은 승보공양의 정신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제작하고, 승보공양의 공덕을 설명하는 스님들의 법문자료 배포 등 홍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업은 교구 및 사찰 승보공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올바른 신행문화와 참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한 일상적인 신앙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 마련을 위해 승보공양운동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주간으로 선포하고 승보공양 모금운동 전개와 함께 매일 정진법회를 병행한다.

출가절 특진 31일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소망교도소 종교편향 시정"을

### 종평위, 국가인권위 · 법무부 등에 조사 촉구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한 소망교회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공)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종평위는 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운영비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는 최근 실시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원서에 >종교 >신급 >직분 >교회명과 세례연도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종평위는 이 부분이 특정종교인만을 위한 항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망교도소가 응시원서를 통해 특정종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도도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시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종평위는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 소망교회에 종교편향 여부 조사와 직원과 재소자의 종교자유가 명확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국영교도소 재소자 중 입소자 선정 절차와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종교차별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종평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소망교도소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응시원서를 배부한 것은 응시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총지종 종령 추대 제11대 효강 대종사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지성)이 제11대 효강 대종사의 종령 추대 법회를 2월 14일 총지사에서 봉행했다. 효강 대종사는 1월 열린 총지종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됐다.

제11대 종령으로 재추대된 효강 대종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51년 밀교에 입교해 중앙교육원장, 법원원장, 제5·9대 총리원장, 제10대 종령,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및 불교TV,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기범 기자

# 성철 탄신 100주년 순례

### 백련불교문화재단 · 불교인재원 공동 주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수행 도량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의 수행도량 24곳을 매일 한 곳씩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월 12일 밝혔다.

불교인재원과 백련불교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순례는 3월 31일 성철 스님 탄신지인 김의사에서 고별

법회를 시작으로 2014년 8월 해인사 백련암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각 사찰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연도 순서에 따라 방문하게 된다. 순례는 매일 첫째 주 목, 금, 토요일에 실시되며 순례 회향 후에는 동참회원 및 후원 불자를 위한 기념비와 기념지에 명단을 수록해 보관한다. 순례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과 24곳 순례 사찰의 주지 스님이 지도법사로 함께한다. 박기범 기자

### ■ 순례 일정과 성철 스님의 수행기간

년도	날짜	사찰명	수행기간
2012년	3월31일	산청 김의사(생가)	24개지기 기거 1935년
	4월26~28일	산청 대원사	1936년 수계도도
	5월24~26일	합천 해인사	1936년 하안거 1938년 동안거 비구계
	6월21~23일	부산 범어사	1937년 동안거
	7월 5~7일	양산 통도사 백련암	1939년 하안거 1940년 동안거
	8월30~9월1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	1940년 오도송
	9월20~22일	대구 동화사	1941년 하안거
	10월11~13일	순천 송광사	1941년 동안거
	11월 1~3일	예산 수월암	1942년 하 · 동안거
	3월28~30일	서산 간월암	1943년 하안거
	4월25~27일	보은 법주사 복천암	1943년 동안거 1944년 하안거
2013년	5월23~25일	선산 도리사	1945년 하 · 동안거
	6월13~15일	문경 대흥사	1947년 하안거 1949년 하 · 동안거
	7월 4~6일	문경 봉암사	1949년 동안거
	8월29~31일	부산 기장 모래골사	1950년 하 · 동안거
	9월26~28일	고성 문수암	1951년 동안거
	10월10~12일	통영 안경사	1952년 동안거 1953년 하 · 동안거
	11월 7~8일	창원 성주사	1954년 하 · 동안거
	3월27~29일	남해 용문사	백련암 1955년 하안거
	4월24~26일	대구 파계사	성정암 1946년 하 · 동안거 1955년 동안거
	5월22~24일	부산 해월정사	1964년 하안거
	6월12~14일	서울 도선사	1964년 동안거
2014년	7월 3~5일	문경 김용사	1965년 하 · 동안거 1966년 하안거
	8월28~30일	합천 해인사 백련암	1966년 하 · 동안거 1993년 열반
		금강산 마하연 (미확정)	1939년 동안거 1940년 하안거

## 2012 한 마음 아버지 마당

###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강생 모집**

1대 상 | 아버지님 누구나 | 1원 원 |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1일 경 | 2012년 3월 10일(토)~4월 4일(토) | 수강료 | 10만원

1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 1마 갈 | 2012년 3월 4일(일)

주최와 6주차는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 1문 의 | 한아름과학원 031-471-6926-7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http://www.hansi.org)에서 확인

한아름과학원 한아름과학원

#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아름다운등

팔각점등등가등, 만월등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윤장대 인동

용주사 LED 인동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신구 · 영구위패 · LED인동 · LED전구

LED 전구: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